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고흥' 부상

국방부, 고흥만 간척지 일원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 의뢰
고흥군·군민들 '결사 반대' ... 의견수렴 없이 추진 비난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해남에 이어 고흥이 포함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이 대해 고흥군과 군민들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역 의견수렴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지난 8월 고흥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했다. 대상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이 조성 중인 고흥만 간척지 일원이다.

작전 적합성 평가는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통상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하기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50만평 이상 전남 9개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작전성 검토를 벌였다. 지난 2018년 군사 작전 적합성과 함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 중 하나인 공항임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곳들이다.

국방부는 3년 전 무안, 해남에 대한 작전 적합성 판단을 내리기도 주민 반발로 사업이 공전을 거듭하자 대체 후보지 발굴 내지 후보군 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전성 검토 결과, 고

흥만 간척지 일원만 유일하게 작전 적합성 평가를 면밀하게 진행해 불만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6개월여간의 작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고흥에 '적합'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방부의 선택지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막혀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새 국면을 맞게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작전성 평가 대상지로 새롭게 지목된 고흥지역 반발이 거세다. 송구근 고흥군수(민주평화당)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작전성 평가 착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흥 주민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흥지역 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들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다만 고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의원은 "(작전성 평가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 추진 여부)는 무엇보다 주

민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지역 경제 파급력과 주민 안전, 주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해볼만 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내달 중 고흥군을 찾아가 관련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건의(광주시)→이전 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지신청(이전후보지 선정위)을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 해남의 경우 공항임지 적합성 및 작전 적합성 평가 결과 지난 2018년 적합 판단이 내려졌으며, 고흥은 최근 작전 적합성 평가가 시작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주시 "더 늦기 전 통합 논의" 전남도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용섭 시장, 실무준비 지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5분여에 걸쳐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제안 배경, 통합 필요성, 논의 방향 등 순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지시를 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제안한 이후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반대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면서 "충격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려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전남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내·외부 활발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통합 당위성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인구 146만명)와 전남(186만명)의 규모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들어 도시 광역화 대세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의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논의,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 대전의 세종과의 통합 거론, 프랑스의

2016년 22개 레지옹 13개로 통합 개편,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체) 9~13개로 7개면 계획 등 국내외 사례까지 덧붙였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는 사·도 민, 사·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고,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공감대 속에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남의 데 설립 등 현안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주시는 기본 구상, 연구 용역, 향후 계획 수립 등 실무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전남도는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 논의의 착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모습을 광주시와 시의 회가 함께 보여줘야 한다"며 논의에 앞선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도 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광주 광산구 광주군공항 활주로에서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학생 10만원·신혼부부 30만원

광주시 9차 민생안정 대책

광주시가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와 신혼부부, 학생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2·6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8월 27일부터 영업하지 못한 집합 금지시설 18개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만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다만 정부 지원액이나 대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일단 이들 10개 업종은 물론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 멀티방·DVD방 등 6개 업종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플라텍 등 2개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정부 지원대상인

10개 업종은 총 200만원씩을, 8개 업종은 100만원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업종에 대해서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집중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에겐 '힘내라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총 19만6292명이 지원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생은 정부에서 별도로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

어서 제외했다. 시는 8000명 수준인 임신부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축박박야야 할 결혼식에서 집합 인원 50명 미만 제한 조치를 당하고, 뷔페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혼부부 가정에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3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랑,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주에 살아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광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다. 광주시는 이번 대책으로 총 24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과 일자리 예산,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가 부른 재활용쓰레기 대란 ▶6면

KIA 고영창 '포스트시즌의 꿈' ▶18면



임영진의 마한-금동왕관·상투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MORE PACIFIC CORPORATION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3만원 이상

프레시업 베이직
32,900원
(카드할인 3,000원, 3+1)

저자극 더마 헤어&바디케어
36,900원
(5+1)

도담36호
36,900원
(10+1)

도담21호
21,900원
(카드할인 4,000원, 5+1)

라벤더 1+1 바디세트
28,900원

도담45호
45,900원
(10+1)

러 친삼화
45,900원 (5+1)

사랑행복두베세트
49,900원 (5+1)

로즈에디션 1+1 세트
28,900원

도담29호
29,400원
(카드할인 5,000원, 5+1)

•3만원 이하

도담21호
21,900원
(카드할인 4,000원, 5+1)

라벤더 1+1 바디세트
28,900원

로즈에디션 1+1 세트
28,900원

도담29호
29,400원
(카드할인 5,000원, 5+1)

해당 프로모션 적용기간 9/16~10/2 일 까지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